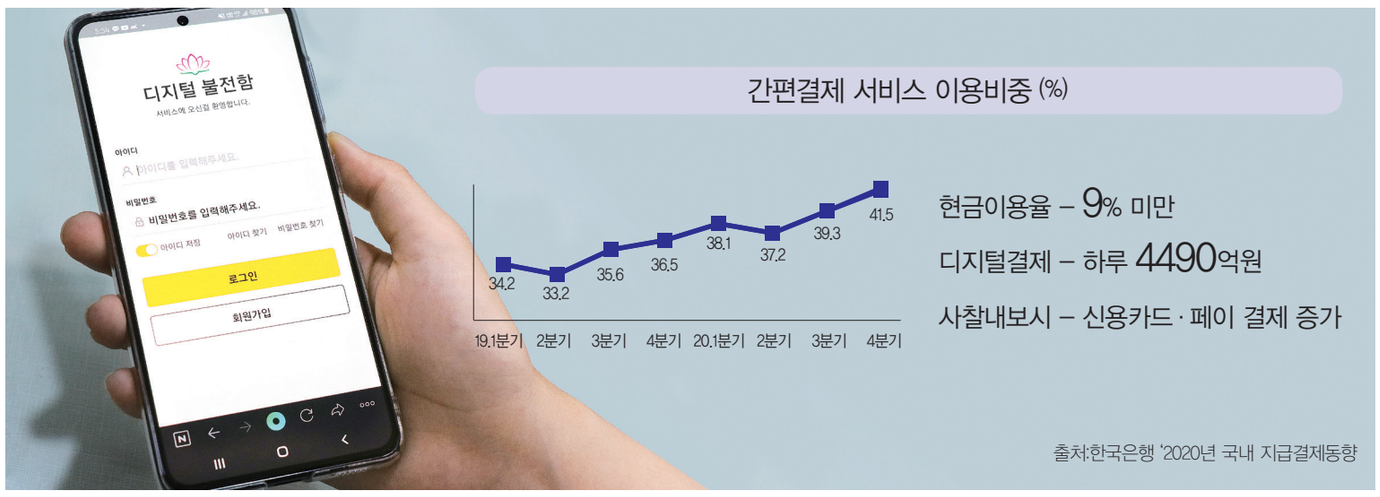
디지털 불전함, 보시문화 변화 이끈다

조계사, 해인사, 화계사 등 디지털 불전함 설치 '눈길'

오프라인 '키오스크' 설치 확대
온라인 '오픈뱅킹' 불전함 첫선
"신도 편의 증대, 이미지 쇄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조계사에 다니는 60대 이 모 씨에게는 최근 작은 기쁨이 생겼다. 자녀에게 부탁해 배운 '페이' 결제로 사찰에 보시하는 것이다. 종무소나 무인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니 무겁기만 한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게 된 것이다.

무현금 사회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불전함 설치 등 불교계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4월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이용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이' 결제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간편결제 이용이 하루 평균 44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2016년 210만 건에서 2020년 1454만 건으로 확대되는 디지털 결제 확대에 사찰에서도 최근 디지털 보시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오프라인 '키오스크' 설치

불교계가 도입 중인 디지털 불전함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오프라인인 사찰에서의 디지털 불전함은 코로나 기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담당한다.

서울 조계사는 1월 키오스크 불전함을 도입했다. 전자지불결제사업을 주로 하는 KG이니시스 제안으로 조계사에 이어 합천 해인사와 화성 항하사 등 3곳에 설치된 상태다.

합천 해인사의 경우 유튜브채널인 해인사TV를 통해 키오스크 불전함 설치를 알리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영상을 통해 "참배객과 탐방객 중 신발을 벗기 힘들거나 거동이 힘든 분들,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보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신도님들이 권유하셨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사서 키오스크로 시주한 김영임 씨는 "요즘 대형마트에 가도 키오스크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는데, 최근에는 카드와 페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는 불전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찰 내 결제에 활용되고 있다. 양양 낙산사와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등 주요 관광사찰은 5월 18일 사찰 입장료를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하기도 했다.

#온라인 '오픈뱅킹 보시함' 도입

키오스크 불전함이 오프라인 보시문화 변화를 이끈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오픈뱅킹 불전함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는 6월 2일 사찰 최초로 온라인 디지털 불전함을 공개했다. KB국민은행과 함께 개발한 디지털 불전함은 QR코드 스캔과 링크주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오픈뱅킹 방식으로 접속가능하다. 인터넷 뱅킹과 다르게 회원 가입 시 연결한 계좌에서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보시가능하다.

디지털 불전함 회원가입은 카카오톡 계정으로도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분증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이뤄진다.

화계사 총무 원정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하게 되었지만 디지털화를 준비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 "비록 초기 단계로 고령의 신도분들이 회원가입 등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점차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내 디지털 불전함은 은행권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 또한 2020년 11월 5일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사 전용 기부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시 시스템을 개시한 바 있다.

#무현금 사회, 디지털 보시 정립 필요

교계에서는 간편결제를 축으로 무현금 사회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디지털 보시문화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도 편의성 증대와 함께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게 불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2019 한국은행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서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현찰 사용이 줄어든다고 본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더 간편하고 빠른 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현금 사용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사찰 내에만 보아도 10여 년 전부터 불전함 보시금 외에는 사찰 용품 결제 등에서 카드결제가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사회의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확대는 신용카드 사용 때와 같이 사찰내 결제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무현금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디지털 보시문화를 사찰이 만들어 가야 한다. 기부와 봉사 등과 연계한 디지털 보시는 불교활동을 알리는 계기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선 수행론과 불교사상 상관관계는

개원 5주년 맞은 대행선연구원 기념학술대회

6월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대행선과 불교 사상 비교 · 고찰
제 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열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수행론과 불교사상을 비교 ·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6월 19일 오전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연구원의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행선의 수행방법을 정토 · 화엄 · 법화 · 유식 · 선 등의 불교사상과 비교해 대행선의 수행법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공개된다.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는 '초기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이기운 동국대 교수는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을, 차상엽 경북대 교수는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을, 김호귀 동국대 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최동순 동국대 교수, 김천학 동국대 교수,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이상호 박사 등이 참여한다. 주제발표가 마무리되면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광장도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식전행사로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3회 묘공학술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도 열린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학술 대회 현장은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에서도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반복되는 산재사망, 고리 끊어야"

조계종 사노위, 故 이선호 노동자 49재

6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서
'중대 재해처벌법' 개선 촉구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엄수됐다.〈사진〉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는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자, 또다시 반복된 산재 사망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를 봉행했다. 위원 스님들은 염불과 기도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으며, 참석자들은 헌양과 헌화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심상정 의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생이었던 故 이선호씨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에서 작업 중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후 49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진심어린 사과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날 49재에서 故 이선호 노동자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영혼을 떠나보냈지만 육신을 보내지 못하는 아비의 찢어지는 심정을 하늘은 헤아려 줄 것"이라며 "우리 아이는 물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이 중대재해법을 강화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는 초석이 된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했다는 위안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어 영혼이 다음 생으로 가기 전 49일동안 이곳 중음세계에 머문다고 한다"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임에도 여전히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애통하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

제5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은 진정한 인간의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 정토·화엄·법화·유식·선 등의 다양한 사상으로서 나타났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들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여러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법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대행선 수행법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시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일시 : 2021. 06. 19 (토) 10:00 - 17: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개회식(10:00 ~ 10:45)
· 묘공학술상 시상식
· 묘공학술장학 증서수여식

2부 오전 학술발표(11:00 ~ 12:20)
좌장 : 박경준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재성교수(능인대학원대학교)
· 논제: 초기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발표: 이기운교수(동국대)
· 논제: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
· 논평: 최동순교수(동국대)

2021년 6월 19일(토)
(10:00 ~ 17:0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3부 오후 학술발표(13:30 ~ 15:40)
좌장 : 김용표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박보람교수(충북대)
· 논제: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 발표: 차상엽교수(경북대)
· 논제: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
· 논평: 남수영교수(능인대학원대)

좌장 : 서윤길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 &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
· 논평: 이상호박사(서강대)

토론광장 15:50 ~ 16:50
좌장 :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폐회식 16:50 ~ 17:00
총평 / 마무리인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031)470-3276/3277 E-Mail : ds7788@hanmaum.org